

# 국제경제기구 가입과 무역개방도: 정치경제학 접근\*

황진영\*\* |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양현석 |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과 박사과정

세계화 진전으로 국가 간 상호의존이 심화된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비록 현실주의 · 자유주의 · 구성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정치 패러다임 속에서 국제기구의 효용성과 한계점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선행연구는 이론적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사례분석에 집중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4개의 국제경제기구(몇 가지 기준에 근거해 설정한 국제경제기구, 즉 은행규제감독위원회 · 세계무역기구 ·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 국제개발협회) 가입이 무역개방도(무역량, 즉 “GDP 대비 무역(수출+수입)량의 비율(%)”로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의하면 국제경제기구가 무역개방도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의하면 국제경제기구가 무역개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설을 설정했다. 또한 이상의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1995년 기준으로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한 국가가 이후 6년 혹은 11년 동안 무역개방도 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증분석 결과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한 국가의 무역개방도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관측됐다. 또한 본 연구는 국제경제기구 가입이 무역증가율에 대체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국제정치 패러다임 중에서 현실주의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경제 관계에 있어 국제경제기구는 특정한 기준을 제시할 뿐 실질적인 무역량 증가를 유도하지는 않았음을 제시한다.

주제어: 국제경제기구, 현실주의, 자유주의, 무역개방도, 무역량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주저자

## I. 머리말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면서 각국의 대외정책은 안보보다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또한 세계화 진전으로 국가 간 상호의존이 심화된 상황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을 규제하고 규칙을 정립해 국가 간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국가들이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 가입한 회원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Archer(1992)는 국제기구를 “회원국들이 공동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2개 혹은 그 이상의 주권국가들이 정부 혹은 비정부 간에 이루어진 합의에 의해 수립된 하나의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체”로 정의했다. 따라서 국제기구는 국제정치를 포괄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하는 주요 연구대상이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의 효율성에 관한 논의는 정치경제학·국제정치학 등의 연구분야에서 첨예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현실주의·자유주의·구성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정치 패러다임에 따라 국제기구의 생성·역할·기능 등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를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정치 패러다임에 근거한 국제기구에 대한 시각차는 기본적으로 국제기구의 필요성 혹은 유용성에서 출발한다. Grieco(1988), Mearsheimer(1994; 1995), Waltz(1979; 1993) 등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현실주의 시각에 의하면 국제기구는 그 독립적 역할이 미미하고 강대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즉 현실주의는 국제기구의 독립적 역할을 부정한다. 그러나 Keohane(1984), Martin(1992) 등이 주장하는 자유주의 이론은 국제기구의 독립적 위상을 인정하고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구성주의(예를 들어 Wendt, 1992)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국가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국가들은 상호간의 선의에 기초한 관계를 형

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정치 패러다임 속에서 국제기구의 효용성과 한계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선행연구는 이론적 측면을 강조하거나 사례분석에 집중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방법론을 사용해 한 국가의 국제경제기구 가입과 무역개방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개별국가가 국제경제에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변수로는 무역개방도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만약 자유주의 이론이 현실세계를 적절히 반영한다면, 국제기구(특히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그들 간 의존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가입 이후 무역개방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주의 시각에 의하면 대부분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국제경제기구 가입이 무역개방도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인 실증분석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비록 현실경제에는 상당히 많은 국제경제기구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해 4개의 국제경제기구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한 1995년을 기준으로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한 국가를 1로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을 0으로 설정한 더미변수가 한 국가의 무역개방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sup>1</sup> 이 때 한 국가의 무역개방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는 “1995~2005년 혹은 1995~2000년 동안의 연평균 GDP 대비 무역량(수출+수입)”과 “1995~2005년 동안의 연평균 무역증가율”을 사용한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국제경제기구 가입이 가입 시기(즉 1995년) 이후 무역개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이론적 논의가 팽배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국제정치 패러다임 중 어떤 논의가 현실경제의 경험과 더 부합할 수 있는지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향후 국제경제기구 역할의 유용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가 지닌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II장에서는 국제기구와 무역개방도 간

---

1. 이와 같은 실증분석 방법론은 Akdede and Hwang(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과 거의 유사하다.

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제III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국제경제기구의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자료의 설명과 추정방정식을 기술한다. 제IV장에서는 국제경제기구 가입과 무역개방도 간의 관계에 관한 일련의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V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의 설정

국제기구는 치열한 국가 간 경쟁이 균형점을 넘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류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각에서 출발해 어느 정도 국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의 결정체로 생겨났다. 즉 국제기구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의 일부를 국제기구에 양도함으로써 국가 간 관계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의 국제기구는 안보 혹은 정치 중심의 기구들이 설립됐지만, 점차적으로 국제기구의 목적이 경제·환경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되어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설립됐다.

특히 국제경제기구는 국제경제 관계의 중심이 되는 무역에 대한 각 국가의 역할 정립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국제경제기구 가입과 무역개방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에 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무역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최근의 다양한 국제정치 패러다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위한 가설은 설정한다.

전통적인 국가 간 무역에 대한 논의는 크게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대별된다. 자유무역은 스미스(Adam Smith)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즉 스미스는 자유무역을 통한 국제 분업과 교환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특화해 싼값에 상품을 생산하고 쓰고 남은 잉여의 상품을 외국과 교환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자유무역 이론의 핵심이다. 따라서 스미스는 모든 국가가 이상과 같은 행동을 동일하게 취할 경우 잉여 생산물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는 모두 소비자의 후생으로 귀착된다고 주장했다.<sup>2</sup>

그러나 스미스의 논의에는 무역이 절대우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논리적 결함이 있다.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리카도(David Ricardo)는 상대주의 가치관을 도입했다. 리카도는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품의 생산력에 있어 모두 열위에 있을 때에도 열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의 생산을 특화할 경우 앞서의 절대우위론과 비슷한 효과가 생겨난다고 제시했다. 이는 역으로 모든 분야의 생산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모든 상품을 생산하기 보다는 우위의 정도가 더 뚜렷한 상품의 생산에 특화해 무역을 할 경우 이득을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sup>3</sup>

이와 같이 한 국가의 상품 생산의 열위나 우위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유무역이 논리적 보편성을 지니게 되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역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 특화의 모수에 의해 무역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김기수, 2006; Balassa, 1963; Macdougall, 1951 등).

이상의 논의와는 달리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자유로운 국가 간 무역을 반대한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경제발전 초기 국가에서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은 산업화된 국가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정부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Hamilton(1964), List(1983), Mill(1902) 등은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성장한 국가들이 현재 산업화된 국가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보호무역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논의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두 국가의 양자 간(bilateral) 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을 양자 간의 관계로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은 오래전에 제기됐다. 즉 국제무역이 다자 간 논의로 확대되면서 무역과 체제에 대한 다른 측면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List(1983)는 국제체제라는

- 
2. 이는 스미스(Adam Smith) 저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the Nations* 내용을 소개한 Lerner (1937)에 기초한 내용임.
  3. 이는 리카도(David Ricardo) 저 *The Principal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내용을 소개한 Fogarty(1911)에 기초한 내용임.

큰 틀에서 국제무역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는 사실상 경제논리를 넘어선 생각이었으며 국제무정부 상태라는 체제적 요인 때문에 보호주의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산업화된 국가의 국력은 개발도상국가 혹은 미개발국가에 비해 월등히 크다. 따라서 List(1983)는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 간 상업조약이 평등하게 체결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종국적으로 국력의 기반인 산업화를 위한 보호주의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와<sup>4</sup> 같은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은 다자주의 공식화를 의미한다. 즉 국제사회는 국제경제기구를 설립해 국가 간 불공정무역 행위를 규제하고 조절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진흥시키려는 생각을 현실화시켰다. 1970년대까지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표방한 무차별, 무역자유화 및 상호주의를 중심으로 국제무역질서가 개편되고 다자주의의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미국이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즉 신상호주의(new-reciprocity)가 생겨났다. 즉 신상호주의의 핵심은 상대국 시장의 폐쇄성을 시정하기 위한 무역보복을 합리화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국제무역과 관련된 다자주의에서도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논쟁에서 움직여오고 있다.<sup>5</sup>

이상의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논쟁은 국제정치에서 그 패러다임에 따라 국제기구를 바라보는 관점과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첨예한 논쟁의 근거가 된다. 김관욱(2004)의 연구에 의하면 국제기구의 형성과 역할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패권안정이론(현실주의에 기초), 기능주의이론 그리고 게임이론(자유주의에 기초)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은 국제기구의 형성과 역할을 찬성하는 자유주의에 기초한 기능주의이론 혹은 게임이론의 논리적 근거가 되며, 반대로 보호무역은 국제기구의 형성과 역할을 반대하는 현실주의에 기초한 패권안정이론의 근거가 된다.

4. ITO는 1944년 하바나 헌장(Havana Charter)에 기초해 이른바 브레턴우즈체제(the Bretton Woods)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으로 출범하였음(김기수, 2006).

5. 이와 같은 다자주의의 효용과 한계에 관한 논의는 김기수(2006)를 참고할 수 있다.

먼저 국가 간 힘의 권력투쟁을 국제정치의 결정요인으로 간주하는 현실주의(realism) 패러다임은 국제기구의 독립적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는 단지 강대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적 의미 이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Grieco, 1988; Mearsheimer, 1994; 1995; Waltz, 1979; 1993 등). 따라서 현실주의 이론에 기초하는 패권안정이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은 국제기구의 형성과 역할이 패권국의 힘과 이해관계에 직결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제기구의 독립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Krasner, 1982).

반면 자유주의(liberalism) 패러다임은 국제기구의 형성과 역할을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의 기능적 필요성에 근거해 설명하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 그 영향력은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역할과 위상을 갖게 된다(Keohane, 1984; Martin, 1992 등). 자유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는 기능주의이론(functional approach theory)은 합리적인 국가들이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을 기대해 국제기구를 형성하고, 이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국제기구는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sup>6</sup>

한편 Stein(1982)의 연구에서 게임이론은 각 국가들의 독자적인 결정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국가들은 차선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형성한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국제기구는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한 역할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국가들의 공통된 이익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장 최근에 대두된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국가 중심이론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대안의 이론으로 등장했다. 즉 구성주의는 다양한 초국가의 국제기구 또는 단체들이 증가하는 시점에 국가 중심이론은 한계가 있다고 인식한다. 또한 구성주의는 이해관계와 정체성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국제환경을 만드는(making)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서창록, 2004; Ruggie, 1998 등). 따라서 구성주의는 국

---

6. 이와 같은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간의 대립에 관한 논의의 요약은 Baldwin(1993)을 참고할 수 있다.

제기구가 처음에는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효용이 떨어진 후에도 계속 존속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에서와 같이 국제경제기구 가입과 무역개방도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크게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나뉜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현실세계의 경험이 현실주의를 지지하는지 혹은 자유주의를 지지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다음의 상반된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A〉 (자유주의 패러다임) 국제경제기구는 무역장벽을 제거해 무역개방도를 증가시킨다.

〈가설 B〉 (현실주의 패러다임) 국제경제기구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무역개방도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현실세계의 경험이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지지할 경우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한 국가의 무역개방도 수준이 높거나 혹은 적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무역증가율이 상승해야 한다. 이에 반해 실증분석에서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한 국가의 무역개방도 수준이나 그 증가의 정도의 미미하게 추정된다면, 현실세계의 경험은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 III. 자료 및 추정방정식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한 국가의 국제경제기구 가입이 무역개방도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2만여 개의 국제기구 중에서 우리의 목적과 부합하는 국제기구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제경제기구의 가입과 무역개방도 간의 관계를 조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국제기구 중 경제문제를 다루는 국제경제기구로 범위를 한정한다.



둘째, 지역 단위, 즉 지역주의(regionalism)에 기반을 둔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지역적 국제기구는 지역 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역할이나 목적이 상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지역 내의 국가가 아닌 경우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자료의 가용성으로 인해 가입국의 가입연도를 공개하지 않는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비록 많은 국제경제기구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국의 목록 및 가입연도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의 국제경제기구는 가입국의 목록만을 제공하고 있다. 가입국의 목록만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제공한 국제경제기구의 경우 우리는 가입국의 가입연도를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논의에서 제외시켰다.

넷째, 우리는 1995년을 가입여부의 기준연도로 선정했다. 1991년 구소련의 붕괴를 야기된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세계화라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했다. 또한 1990~1993년 동안 지구상에 무려 27개 국가가 새롭게 탄생했다(Akdede and Hwang, 2008). 따라서 1990년 중반 이후 개별국가는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경제문제를 고려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편의를 위해 이 시점을 1995년으로 선정했다.

이상의 기준과 절차를 통해 선정된 4개의 국제경제기구는 <표 1>과 같다. 즉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국제경제기구로는 ‘은행규제감독위원회’(Committee on Banking Regulation and Supervisory Practices: BIS),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및 ‘국제개발협

<표 1> 선정된 국제경제기구 및 가입비율

국제경제기구		BIS	WTO	ESCAP	IDA
전체국가 (207개국)	가입국 수	55	111	50	162
	가입비율(%)	26.57	53.62	24.15	78.26
실증분석 표본 (136개국)	가입국 수	44	86	32	122
	가입비율(%)	32.35	63.24	23.53	89.71

주: BIS는 ‘은행규제감독위원회’, WTO는 ‘세계무역기구’, ESCAP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IDA는 ‘국제개발협회’를 나타냄.

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다. 1995년 전체국가(207개 국가) 대비 이들 국제경제기구에 대한 국가의 가입비율은 24.15~78.26%에 달한다. 한편 이들 국제경제기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및 각 국가의 가입 여부는 각기 <부록 1>과 <부록 2>에 정리되어 있다.

이상의 국제기구 중에서 BIS는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외관상 무역개방도와 큰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BIS는 국제결제 업무를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결제 업무의 기능은 가입국 간 원활한 교역을 위한 필수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BIS의 기능은 무역개방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또한 ESCAP의 경우 그 명칭을 아시아태평양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기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ESCAP는 미국은 물론 유럽국가인 영국·러시아·프랑스 등을 회원국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의 국제경제기구의 하나로 간주했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136개 국가를 사용한다. 이는 순전히 한 국가의 무역개방도 및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여러 변수들의 가용성에 근거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136개 국가의 표본에서 4개 국제경제기구 가입비율은 23.53~89.71%에 달한다. 한 국가의 무역개방도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GDP 대비 무역량(즉 수출+수입) 비율”의 1995~2005년 평균값(이후 OPEN1로 나타냄) 혹은 1995~2000년의 평균값(이후 OPEN2로 나타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6년 혹은 11년의 평균값은 사용한 이유는 일시적(단기적) 무역량 혹은 GDP의 심각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함이다.<sup>7</sup> 이러한 OPEN1과 OPEN2의 기초 통계량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는데, 이러한 국가 간 무역량의 자료는 세계은행(2008)에서 구할 수 있다.

개별국가의 국제경제기구 가입 여부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나타낸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실증분석에서 사용하는 국제경제기구는 4개이며, 이를 국제경제기구 약어(즉 BIS, WTO, ESCAP 및 IDA)를 해당 국제경제기구의 변수 명으로 설정하고, 가입 국가는 1로 그리고 비가입 국가는 0으로

7. 또한 2000년을 기준으로 두 기간을 선정한 이유는 기간 선정에 따른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량

변수	설명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극대값	극소값
OPEN1	GDP 대비 무역량, 1995~2005년 연평균	83.89	77.74	39.82	207.21	2.35
OPEN2	GDP 대비 무역량, 1995~2000년 연평균	81.57	75.02	41.05	216.15	2.35
PGDP	1995년 실질 1인당 GDP	7,414.6	3,814.7	8,320.9	41,090.4	284.0
PCAP	GDP 대비 총자본형성의 지출 비율	23.29	21.84	9.09	76.32	4.03
HCAP	중등교육기관 취학률	69.00	75.50	33.18	161.66	6.07
LAND	전체 토지 대비 경작가능 토지 비율	15.55	12.02	14.13	59.91	0.04

주: 표본은 136개 국가임.

처리해 설명변수로 고려한다.

국제경제기구 가입 여부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무역개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강건한 추정결과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통제한다. 먼저 경제적 성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실질 1인당 GDP(이후 PGDP로 나타냄)를 고려하는데, 이는 세계은행(2008)이 제공한 자료로 1995년 구매력으로 추정한 실질 1인당 국내총생산의 값으로 정의된다.

국제무역 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의 무역개방도는 그 국가의 부존자원의 정도에 의존한다. 한 국가의 부존자원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먼저 물적자본(physical capital) 및 인적자본(human capital) 축적의 대리변수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국가별 물적자본의 축적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는 “GDP 대비 총자본형성 지출 비율(%)”(이후 PCAP로 나타냄)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자본형성 지출의 기간에 따라 물적자본의 축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1인당 물적자본 스톡’을 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PCAP를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국가별 인적자본의 축적은 국가 간 분석에서 널리 사용되는 “중등교육기관 취학률(%)”(이후 HCAP로 나타냄)을 이용한다. 이상의 PCAP는 국제경제기구 가입 기

준인 1995년의 자료이며, HCAP는 자료의 가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1998년 값이다.<sup>8</sup> 이들 자료 역시 세계은행(2008)이 제공한다.

또한 한 국가의 부존자원의 정도는 천연자원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전체 토지 대비 경작가능 토지 비율(%)”(이후 LAND로 나타냄)로<sup>9</sup>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LAND를 천연자원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발전 초기인 1970년의 자료를 이용한다. 이와 같은 LAND의 국가별 자료 역시 세계은행(2008)이 제공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경제기구 가입 여부가 무역개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OPEN_i = \alpha_0 + \alpha_1 \log(PGDP)_i + \alpha_2 PCAP_i + \alpha_3 HCAP_i + \alpha_4 \log(LAND)_i \\ + \gamma DIEO_i + \epsilon_i$$

위 식에서  $OPEN = [OPEN1, OPEN2]$ , 하첨자  $i$ 는 국가,  $\alpha_0$ 는 상수항,  $\alpha_k$  ( $k = 1, 2, 3, 4$ )와  $\gamma$ 는 추정된 설명변수의 계수 값,  $DIEO = [BIS, WTO, ESCAP, IDA]$ ,  $\epsilon$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sup>10</sup>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국제경제기구 더미변수에 대한 추정계수, 즉  $\gamma$

8. 세계은행(2008)에서 1995년 중등교육기관 취학률을 제공하고 있지만, 가용한 국가의 수가 상당히 부족해 본 연구에서는 1998년 값을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즉 1995년 중등교육기관 취학률의 사용할 경우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표본이 80개 국가로 줄어들며, 이는 국제경제기구에 가입된 국가의 수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추정결과가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중등교육기관 취학률의 자료는 부득이 1998년 값을 이용했다.
9. 한 국가의 천연자원 부존량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LAND를 사용하는 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황진영·강동관 2009; Leite and Weidmann, 2002; Sachs and Warner, 1999 등)에서 천연자원 부존량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GDP 대비 천연자원 수출 비율”을 이용했지만, 이는 자료의 수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이 풍부한 산업화된 국가의 경우 천연자원을 가공해 수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천연자원의 보유량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는 경작가능 토지가 굳이 천연자원 부존량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경작가능 토지는 부존자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10. 실증분석에서 PGDP와 LAND는 자연로그 값을 사용한다. 이는 PGDP나 LAND의 경우 국가 간 편차가 너무 심해, PGDP나 LAND이 큰 국가가 종속변수에 더 큰 설명력을 갖는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한편 이상의 추정결과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제기구 가입이 연평균 무역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견해에 따르면 무역량 수준이 낮은 국가가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한 이후 무역량 수준이 개선되는 형태로 무역증가율이 크게 신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1995~2005년 기간의 연평균 무역증가율의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설명변수는 상기의 추정방정식과 동일한 형태로 국제경제기구 가입과 무역증가율 간의 관계를 함께 관측한다.

추정방법은 최소제곱법(least squares method)을 사용한다. 이 때 통계적 추론을 위한  $t$ -값들은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해 White의 방법을 이용한 수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해 계산된다.

#### IV. 실증분석 결과

4개의 국제경제기구 중 은행규제감독위원회(BIS)에 가입한 국가의 터미변수를 사용한 추정결과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모형 (A)~(D)는 종속변수로 OPEN1, 모형(E)~(H)는 종속변수로 OPEN2를 사용한 추정결과다. 이와 같이 동일한 종속변수에 대해 네 가지 다른 형태의 모형으로 분석한 이유는 국가 간 분석에서 흔히 나타나는 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다.

<표 3>의 결과에서 BIS 가입 터미변수의 추정계수는 모형의 선택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IS에 가입한 국가들이 비가입국가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무역량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역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가 BIS에 가입한 이후에도 무역개방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국제기구와 관련된 현실적인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결과다.

<표 3>에서 BIS 가입 터미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 중 PGDP와

〈표 3〉 BIS 가입과 무역개방도에 대한 추정결과

	OPEN1(1995~2005년 평균)				OPEN2(1995~2000년 평균)			
	모형(A)	모형(B)	모형(C)	모형(D)	모형(E)	모형(F)	모형(G)	모형(H)
상수항	0.37 (0.02)	-26.40 (-1.29)	-12.15 (-0.46)	-0.97 (-0.03)	-10.86 (-0.52)	-39.87 (-1.94)	-28.46 (-1.06)	-16.59 (-0.50)
LOG (PGDP)	11.19 (4.08)***	8.89 (3.21)***	5.95 (1.39)	4.70 (0.95)	12.42 (4.53)***	4.70 (3.54)***	7.57 (1.73)*	6.24 (1.23)
PCAP		1.89 (5.91)***	1.90 (5.82)***	1.91 (5.84)***		2.05 (5.94)***	2.06 (5.82)***	2.07 (5.87)***
HCAP			0.15 (0.90)	0.18 (1.02)			0.12 (0.73)	0.15 (0.87)
LOG (LAND)				-1.83 (-0.86)				-1.94 (-0.90)
BIS (가입=1)	-26.66 (-3.06)***	-21.65 (-2.49)***	-23.20 (-2.56)***	-21.19 (-2.22)**	-30.37 (-3.45)***	-24.94 (-2.85)***	-26.18 (-2.88)***	-24.05 (-2.48)**
R <sup>2</sup>	0.09	0.27	0.28	0.28	0.11	0.31	0.31	0.32
표본의 수	136	136	136	136	136	136	136	136

주: (i) 괄호 안의 수는 t-값을 의미하며, 통계적 추론을 위한 t-값들은 이분산성을 고려해 White의 방법을 이용한 수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해 계산됨. (ii) \*\*\*, \*\*, \*은 각기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PCAP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높거나 물적자본이 많이 축적된 국가에서 무역개방도가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HCAP와 LAND의 추정계수는 각기 양과 음의 값으로 관측됐지만, 그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낮은 수준이다.

국제경제기구 중에서 WTO 가입 더미변수를 통제한 추정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모형(H)를 제외한 WTO 가입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5% 혹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sup>11</sup> 이는 BIS 가입 더미변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WTO에 가입한 국가의 무역개방도 수준이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상의 추정결과는 Grieco(1988), Mearsheimer(1994; 1995), Waltz

11. 모형(H)에서 WTO 가입 더미변수의 추정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10%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1979; 1993)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기구에 대한 현실주의 시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에서 WTO 가입 터미변수를 제외한 다른 설명변수들의 추정계수에 대한 부호나 통계적 유의성은 〈표 3〉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하다. 즉 초기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모형의 선택에 의존했으며, 물적자본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였다. 또한 HCAP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상당히 낮게 관측됐다. 그러나 모형(D)과 모형(H)에서 LAND 추정계수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로 추정됐는데, 이는 경작가능 토지가 적은 국가가 무역량 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일반적 관측을 반영하는 결과다.

이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ESCAP 가입 터미변수와 IDA 가입 터미변수를 통제한 추정결과는 각기 〈표 5〉와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표 5〉과 〈표 6〉에서 ESCAP 가입 터미변수와 IDA 가입 터미변수의 추정계수는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음의 값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이들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

〈표 4〉 WTO 가입과 무역개방도에 대한 추정결과

	OPEN1(1995~2005년 평균)				OPEN2(1995~2000년 평균)			
	모형(A)	모형(B)	모형(C)	모형(D)	모형(E)	모형(F)	모형(G)	모형(H)
상수항	36.52 (1.83)*	3.18 (0.18)	2.57 (0.09)	21.08 (0.67)	30.99 (1.55)	-5.49 (-0.31)	-10.49 (-0.38)	9.98 (0.31)
LOG (PGDP)	7.04 (2.82)***	5.27 (2.30)**	5.40 (1.12)	3.37 (0.64)	7.40 (2.99)***	3.37 (2.38)**	6.50 (1.31)	4.26 (0.80)
PCAP		1.91 (5.78)***	1.91 (5.68)***	1.93 (5.81)***		2.09 (5.95)***	2.09 (5.86)***	2.10 (6.03)***
HCAP			-0.01 (-0.03)	0.07 (0.39)			-0.05 (-0.26)	0.04 (0.22)
LOG (LAND)				-3.62 (-1.71)*				-4.00 (-1.88)*
WTO (가입=1)	-16.54 (-2.41)**	-11.24 (-1.79)*	-11.29 (-1.69)*	-10.88 (-1.64)*	-16.20 (-2.28)**	-10.41 (-1.65)*	-10.81 (-1.60)*	-10.36 (-1.55)
R <sup>2</sup>	0.06	0.25	0.25	0.26	0.06	0.27	0.27	0.29
표본의 수	136	136	136	136	136	136	136	136

주: (i) 괄호 안의 수는 t-값을 의미하며, 통계적 추론을 위한 t-값들은 이분산성을 고려해 White의 방법을 이용한 수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해 계산됨. (ii) \*\*\*, \*\*, \*은 각기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5〉 ESCAP 가입과 무역개방도에 대한 추정결과

	OPEN1(1995~2005년 평균)				OPEN2(1995~2000년 평균)			
	모형(A)	모형(B)	모형(C)	모형(D)	모형(E)	모형(F)	모형(G)	모형(H)
상수항	42.44 (2.05)**	7.14 (0.39)	21.10 (0.76)	41.11 (1.30)	36.90 (1.76)*	-1.45 (-0.08)	8.05 (0.29)	30.00 (0.93)
LOG (PGDP)	5.18 (2.08)**	3.76 (1.72)*	1.00 (0.22)	-1.14 (-0.23)	5.58 (2.23)**	-1.14 (1.82)*	2.16 (0.46)	-0.19 (-0.04)
PCAP		2.09 (6.80)***	2.11 (6.75)***	2.12 (6.96)***		2.27 (6.91)***	2.28 (6.82)***	2.30 (7.09)***
HCAP			0.13 (0.71)	0.21 (1.10)			0.09 (0.49)	0.18 (0.95)
LOG (LAND)				-3.91 (-1.86)*				-4.29 (-2.06)**
ESCAP (가입=1)	-5.23 (-0.58)	-12.57 (-1.55)*	-13.86 (-1.60)*	-14.25 (-1.67)*	-5.45 (-0.60)	-13.43 (-1.65)*	-14.31 (-1.67)*	-14.73 (-1.75)*
R <sup>2</sup>	0.03	0.25	0.25	0.27	0.03	0.28	0.28	0.30
표본의 수	136	136	136	136	136	136	136	136

주: (i) 괄호 안의 수는 t-값을 의미하며, 통계적 추론을 위한 t-값들은 이분산성을 고려해 White의 방법을 이용한 수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해 계산됨. (ii)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의성은 〈표 3〉과 〈표 4〉의 국제경제기구 가입 더미변수의 추정계수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즉 〈표 5〉에서는 모형(A)와 (E), 〈표 6〉에서는 모형(E)~(H)에서 국제경제기구 가입 더미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전통적인 범위를 초과한다. 한편 더미변수를 제외한 다른 일련의 설명변수들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4〉의 추정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경제기구 가입 더미변수의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라는 사실은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한 국가의 무역개방도가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표 6〉에서 IDA 가입 더미변수가 무역개방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데, 그 추정계수의 크기 및 통계적 유의성이 1995~2000년 기간에 비해 1995~2005년 기간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국제경제기구 가입이 무역개방도 개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다. IDA가 저개발국가의 지원을 설립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에 기초할 때



이상의 결과는 국제적인 지원이 오히려 무역개방도를 방해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현실주의, 즉 국제기구의 독립적 역할은 미미하고 국제기구는 강대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바꾸어 말하면 한 국가의 무역개방도는 단순히 국제경제기구 가입에 의해 개선되는 것이 아니며, 그 국가의 다양한 경제적·정치적·환경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국제경제기구 가입이 무역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7>과 같다. 이 때 국가별 무역증가율은 1995~2005년 기간의 연도별 무역

<표 6> IDA 가입과 무역개방도에 대한 추정결과

	OPEN1(1995~2005년 평균)				OPEN2(1995~2000년 평균)			
	모형(A)	모형(B)	모형(C)	모형(D)	모형(E)	모형(F)	모형(G)	모형(H)
상수항	60.85 (2.55)***	23.55 (1.06)	28.63 (0.97)	47.84 (1.48)	54.33 (2.27)	13.75 (0.63)	14.34 (0.49)	35.44 (1.10)
LOG (PGDP)	4.69 (1.89)*	3.49 (1.55)*	2.45 (0.54)	0.42 (0.09)	5.12 (2.06)**	0.42 (1.68)**	3.69 (0.79)	1.46 (0.30)
PCAP		1.98 (6.23)***	1.99 (6.17)***	2.00 (6.33)***		2.16 (6.18)***	2.16 (6.12)***	2.17 (6.31)***
HCAP			0.05 (0.28)	0.13 (0.70)			0.01 (0.03)	0.09 (0.51)
LOG (LAND)				-3.79 (-1.85)				-4.17 (-2.03)
IDA (가입=1)	-17.38 (-1.56)*	-16.21 (-1.55)*	-16.12 (-1.54)*	-16.21 (-1.54)*	-16.61 (-1.46)	-15.33 (-1.45)	-15.32 (-1.44)	-15.42 (-1.43)
R <sup>2</sup>	0.04	0.25	0.25	0.26	0.04	0.27	0.27	0.29
표본의 수	136	136	136	136	136	136	136	136

주: (i) 괄호 안의 수는 t-값을 의미하며, 통계적 추론을 위한 t-값들은 이분산성을 고려해 White의 방법을 이용한 수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해 계산됨. (ii) \*\*\*, \*\*, \*은 각기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12. 한편 본 연구에서는 4개의 국제경제기구 가입 더미변수를 하나의 추정방정식에 모두 포함시킨 추정을 시도해 보았다. 비록 그 결과는 표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았지만, <표 3>~<표 6>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음을 밝혀둔다.

〈표 7〉 국제경제기구 가입과 무역증가율에 대한 추정결과

종속변수: 무역증가율(1995~2005 연평균)

	모형(A): BIS	모형(B): WTO	모형(C): ESCAP	모형(D): IDA
상수항	5.24(1.07)	2.23(0.43)	3.54(0.82)	3.46(0.68)
LOG(PGDP)	-0.39(-0.65)	0.16(0.22)	-0.16(-0.31)	-0.08(-0.13)
PCAP	0.05(2.07)**	0.05(1.92)**	0.06(2.15)**	0.06(2.01)**
HCAP	0.00(0.17)	0.00(0.08)	0.01(0.73)	0.01(0.39)
LOG(LAND)	-0.17(-1.07)	-0.03(-0.17)	-0.05(-0.30)	-0.04(-0.24)
무역량(1995년)	-0.02(-2.31)**	-0.03(-3.27)***	-0.03(-3.32)***	-0.03(-2.85)***
DIEO	1.69(3.17)***	-0.93(-1.19)	-0.73(-0.79)	-0.46(-0.59)
R <sup>2</sup>	0.10	0.09	0.08	0.08
표본의 수	136	136	136	136

주: (i) 괄호 안의 수는 t-값을 의미하며, 통계적 추론을 위한 t-값들은 이분산성을 고려해 White의 방법을 이용한 수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해 계산됨. (ii)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증가율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무역증가율 추정방정식에서 설명변수와 추정방법은 이전의 무역량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무역증가율 추정방정식에는 1995년 무역량을 설명변수에 추가로 통제했다. 이는 초기의 무역량이 무역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부 수렴과 관련된 논의에 기초한다.

모형(B), (C), (D)의 추정결과 국제경제기구 가입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변수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다소 낮은 수준이다. 모형(A)에서 BIS 가입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1995년 이전 BIS에 가입한 국가가 1995년 이후 무역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현실주의를 지지하는 이전의 추정결과와는 배치되는 결과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는 표본에 사용된 국가에서 1995년 기준 BIS에 가입한 국가의 수가 상당히 적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sup>13</sup> 또한 〈표 3〉의 BIS 가입

13. 표본에 사용된 136개 국가 중 1995년 기준 BIS에 가입한 국가는 44개 국가다.

더미변수추정계수의 절대값과 통계적 유의성이 <표 4>~<표 6>의 다른 국제경제기구 더미변수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BIS에 가입한 적은 수의 국가의 무역량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무역증가율의 변화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상의 결과는 국제경제기구의 역할에 의한 무역증가율의 변화를 반영하기 보다는 세계화 진전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 과대평가됐을 개연성이 있다.

다른 설명변수로는 PCAP 추정계수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 3>의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1995년 무역량 수준은 이후 11년 평균 무역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됐는데, 이는 국가 간 무역증가율에도 조건부 수렴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가설 B>, 즉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대체로 지지한다. 다시 말해 1995년 이전에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한 국가는 이후 6년 혹은 11년 동안 무역개방도 수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무역증가율 역시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물론 BIS 가입 더미변수가 무역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향후 보완적인 연구를 통해 BIS 가입 더미변수가 다른 국제경제기구 가입 더미변수와 상이하게 나타난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할 경우 국제경제기구가 한 국가의 무역개방도(무역량으로 측정)를 개선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역할은 다른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 혹은 국제경제기구가 한 국가의 무역개방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할지라도,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며 적어도 장기간이 걸린다고 추측할 수 있다.

## V. 맺음말

대표적인 국제정치 패러다임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국제기구에 대해 대단히 상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 국제기구의 효용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는 두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어떤 패러다임이 현실세계를 더 잘 반영하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다양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이론적 검토 혹은 사례 분석에 집중됐으며, 실증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제경제기구와 무역개방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인 방법론을 사용해 분석함으로써,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중 어떤 패러다임이 현실세계의 경험과 부합할 수 있는지 파악하려 노력했다. 즉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즉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국제경제기구가 무역개방도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현실주의 패러다임은 국제경제기구가 무역개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1995년 기준으로 국제경제기구(몇 가지 기준에 근거해 4개의 기구를 선정함)에 가입한 국가가 이후 6년 혹은 11년 동안 무역량으로 측정된 무역개방도 수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한 국가의 무역증가율 역시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됐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경제기구가 한 국가의 무역개방도를 개선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지지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협력, 무역량 증대 및 이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에는 다소의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상의 의미 있는 추정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소의 한계점과 향후의 연구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무역개방도의 대리변수로 “GDP 대비 무역량”을 사용했다. 그러나 한 국가의 무역개방도는 실질적인 재화의 흐름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제약 혹은 다양한 규제 등을 고려

해야 한다. 따라서 무역개방도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사용하거나 혹은 국제경제기구 가입이 평균 관세율·쿼트 및 교역조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다른 국제경제기구와는 달리 BIS 가입 더미변수가 무역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1995년을 기준으로 BIS에 가입한 국가들의 무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세계화 진전에 따른 자연적인 무역량 증가가 과대평가 됐다고 볼 수 있다. 혹은 BIS 가입으로 금융거래의 안정성이 강화되어 실질적으로 무역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보완할 때 본 연구의 논의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혹은 현실주의 입장에 대한 보완적인 검토를 위해서 특정 국제경제기구 회원국 간의 무역개방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개별국가가 국제기구 가입에 있어 다른 국제적·국내적 정치적 의도와 관련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혹은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한 특정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가입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주제일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관욱. 2004. 「국제기구 역할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미국의 패권적 국제질서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2권 1호 pp. 245-268.
- 김기수. 2006. 「경제 다자주의의 효용과 한계: 국제무역체계를 중심으로」. 『세종정책연구』 2권 2호 pp. 139-171.
- 서창록. 2004. 『국제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 서울: 다산출판사.
- 황진영·강동관. 2008. 「국가 간 천연자원 부존량, 거버넌스 및 부패의 상호연관성」. 『재정정책논집』 10권 2호 pp. 99-120.
- Akdede, Sacit H. and Jinyoung Hwang. 2008. "Empirical Investigation of Disintegrations and Nationalism." *Applied Economics Letters* 15. pp. 1065-1071.
- Archer, Clive. 1992.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outledge.
- Balassa, Bela. 1963. "An Empirical Demonstration of Classical Comparative Cost

- Theor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5. pp. 231-38.
- Baldwin, David A. 1993.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 Columbia University Press.
- Grieco, Joseph. 1988. “Anarchy and Limits of Coop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 pp. 485-507.
- Hamilton, Alexander. 1964. “Report on Manufactures.” *The Report of Alexander Hamilton*. edited by J. E. Cook. New York: Harper & Row.
- Keohane, Robert O. 1984. *After Hegemon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rasner, Stephen D. 1983. *International Regimes*. Cornell University Press.
- Leite, Carlos and Jens Weidmann. 2002. “Does Mother Nature Corrupt? Natural Resources,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Governance, Corrup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edited by George T. Abel and Sanjeev Gupta. IMF. pp. 159-196.
- List, Friedrich. 1983. *The Natural System of Political Economy*. edited by W. O. Henderson. London: Frank Cass and Company Ltd.
- Macdougall, G. D. A. 1951. “British and American Exports: A Study Suggested by the Theory of Comparative Costs.” *Economic Journal* 61. pp. 697-724.
- Martin, Lisa L. 1992. “Institutions and Cooperation.” *International Security* 16. pp. 143-178.
- Mearsheimer, John J. 1995. “A Realist Reply.” *International Security* 20. pp. 82-93.
- Mearsheimer, John J. 1994.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Security* 19. pp. 5-49.
- Mill, John S. 1902.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 Ricardo, David. 1911. *The Principle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introduced by Michale P. Fogarty. J. M. Dent & Sons Ltd.
- Ruggie, John G. 1998. *Constructing the world polity— Essays on international institutionalization*. New York/London: Routledge.
- Sachs, Jeffrey D. and Andrew M. Warner. 1999. “The Big Push, Natural Resource Booms and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59. pp. 43-76.
- Smith, Adam. 1937.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the Nations*. edited by Edwin Cannan with an introduction by Max Lerner. New York: The Modern Library.
- Stein, Arthur A. 1982. *Coordination Collaboration: Regime in Anarchic World*. Cornell University Press.
- Waltz, Kenneth. 1993.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18. pp. 44-79.
- Waltz, Kenneth.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 Wendt, Alexander. 1992. “Anarch Is What S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 pp. 391-425.
- World Bank. 2008.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 CD-Rom.

## 〈부록 1〉 실증분석에 선정된 국제경제기구의 설명

1. 은행규제감독위원회(Committee on Banking Regulation and Supervisory Practices: BIS)는 은행감독 업무의 국가 간 협력과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제결제은행 산하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BIS자기자본규제 제도를 작성했다. BIS규제 또는 바젤 I 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1988년 7월 합의됐으며 1992년부터 바젤회원국들 사이에서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도입한 뒤 1997년 말 의무화했다.

2.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회원국들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국제기구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각국의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경제발전을 지향하고 회원국 및 타지역과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통계와 정보의 수집·조사·연구 및 경제사회이사회와 관계 각국에 대한 권고 등을 주로 논의하는 국제경제기구다. 매년 1회 가맹국 도시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그 하부기구로 사무국과 운수통신·무역·통계·사회개발·인구·천연자원·산업·주택·기술·경제계획·농업개발 분야 위원회, 상주대표자문위원회 및 내륙국특별위원회가 있다.

4.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는 IBRD의 자매기구로서 저소득 국가에 대한 경제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1960년 9월에 설립됐다. 국제개발협회는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IBRD에 비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융자해주기 위해 설립됐으며, 회원국이 되려면 먼저 세계은행에 가입해야 하고 임원진도 세계은행의 임원을 겸임해야 한다. 재원은 부유한 회원국들의 기부금과 세계은행의 수익금을 전환해 충당한다.



## 〈부록 2〉 국제경제기구 가입국 목록: 1995년 기준 가입여부

국가	BIS	WTO	ESCAP	IDA	국가	BIS	WTO	ESCAP	IDA
Afghanistan			0	0	Djibouti*		0		0
Albania*				0	Dominica*		0		0
Algeria	0			0	Dominican Rep.*		0		0
American Samoa					Ecuador*				0
Andorra					Egypt, Arab Rep.*		0		0
Angola				0	El Salvador*		0		0
Antigua&Barbuda		0			Equatorial Guinea*				0
Argentina*	0	0		0	Eritrea*				0
Armenia*			0	0	Estonia*	0			0
Aruba					Ethiopia*				
Australia*	0	0	0	0	Faeroe Islands				
Austria*	0	0		0	Fiji*			0	0
Azerbaijan*			0	0	Finland*	0	0		0
Bahamas, The					France*	0	0	0	0
Bahrain*		0			French Polynesia				
Bangladesh*		0	0	0	Gabon*		0		0
Barbados		0			Gambia, The*				0
Belarus*					Georgia*				0
Belgium	0	0		0	Germany*	0	0		0
Belize*		0		0	Ghana*		0		0
Benin*				0	Greece*	0	0		0
Bermuda					Greenland				
Bhutan*			0	0	Grenada				0
Bolivia*		0		0	Guam				
Bosnia&Herzegovina	0			0	Guatemala*		0		0
Botswana*		0		0	Guinea*		0		0
Brazil*	0	0		0	Guinea-Bissau*		0		0
Brunei Daru.*		0	0		Guyana*		0		0
Bulgaria*	0				Haiti				0
Burkina Faso*		0		0	Honduras		0		0
Burundi		0		0	Hong Kong	0	0		
Cambodia*			0	0	Hungary*	0	0		0
Cameroon*		0		0	Iceland*	0	0		0
Canada*	0	0		0	India*	0	0	0	0
Cape Verde				0	Indonesia*	0	0	0	0
Cayman Islands					Iran, Islamic Rep.*			0	0
Central African Rep.		0		0	Iraq				0

국가	BIS	WTO	ESCAP	IDA	국가	BIS	WTO	ESCAP	IDA
Chad*				0	Ireland*	0	0		0
Channel Islands					Isle of Man				
Chile*	0	0		0	Israel*	0	0		0
China*	0		0	0	Italy*	0	0		0
Colombia*		0		0	Jamaica*		0		
Comoros*				0	Japan*	0	0	0	0
Congo, Dem. Rep.*				0	Jordan*				0
Congo, Rep.*		0		0	Kazakhstan*			0	0
Costa Rica*	0	0		0	Kenya*		0		0
Cote d'Ivoire*		0		0	Kiribati*			0	0
Croatia*				0	Korea, Dem. Rep.			0	
Cuba		0			Korea, Rep.*	0	0	0	0
Cyprus*		0		0	Kuwait		0		0
Czech Republic*	0	0		0	Kyrgyz Republic*			0	0
Denmark*	0	0		0	Lao PDR			0	0
Latvia*	0			0	Russian Federation	0		0	0
Lebanon*				0	Rwanda*				0
Lesotho*		0		0	Samoa			0	0
Liberia				0	San Marino				
Libya				0	Sao Tome & Prin.				0
Liechtenstein		0			Saudi Arabia	0			0
Lithuania*	0				Senegal*		0		0
Luembourg		0		0	Seychelles*				
Macao, China		0			Sierra Leone		0		0
Macedonia, FYR*	0			0	Singapore	0	0	0	
Madagascar		0		0	Slovak Republic*	0	0		0
Malawi*		0		0	Slovenia*	0	0		0
Malaysia*	0	0	0	0	Solomon Islands			0	0
Maldives*		0	0	0	Somalia				0
Mali*		0		0	South Africa*	0	0		0
Malta*		0			Spain*	0	0		0
Marshall Islands			0	0	Spain*			0	0
Mauritania*		0	0	0	Sri Lanka		0	0	0
Mauritius*		0		0	St. Kitts & Nevis*				0
Mayotte					St. Lucia				0
Mexico*	0	0		0	St. Vinc. & Grenadines*				0
Micronesia.				0	Sudan*				0
Moldova*				0	Suriname		0		
Monaco					Swaziland*		0		0
Mongolia*			0	0	Sweden*	0	0		0
Morocco*		0		0	Switzerland*	0	0		0
Mozambique*		0		0	Syrian Arab Rep.*				0
					Tajikistan*			0	0

국가	BIS	WTO	ESCAP	IDA	국가	BIS	WTO	ESCAP	IDA
Myanmar*		0	0	0	Tanzania		0		0
Namibia*		0			Thailand	0	0	0	0
Nepal*		0	0	0	Timor-Leste			0	0
Netherlands*	0	0	0	0	Togo*		0		0
Netherlands Ant.		0			Tonga*			0	0
New Caledonia					Trinidad&Tobago*		0		0
New Zealand*	0		0	0	Tunisia*		0		0
Nicaragua*		0		0	Turkey	0	0	0	0
Niger*				0	Turkmenistan			0	
Nigeria		0		0	Uganda*		0		0
North. Mariana Isl.					Ukraine*				0
Norway*	0	0		0	UAE*				0
Oman*				0	United Kingdom*	0	0	0	0
Pakistan		0	0	0	United States*	0	0	0	0
Palau			0		Uruguay*		0		
Panama*				0	Uzbekistan			0	0
Papua N. Guinea			0	0	Vanuatu*			0	0
Paraguay*		0		0	Venezuela, RB*		0		
Peru*		0		0	Vietnam*			0	0
Philippines	0	0	0	0	Virgin Islands				
Poland*	0	0		0	West Bank&Gaza*				
Portugal*	0	0		0	Yemen, Rep.*				0
Puerto Rico					Zambia*		0		0
Qatar					Zimbabwe		0		0
Romania*	0	0			이상 207개 국가				

주: \*는 실증분석에 사용한 136개 국가임.

##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and Trade Openness: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Jinyoung Hwa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Hannam University

Hyun-Seok Yang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tatistics, Korea University

The growing trend toward globalization not only has aggravated the interdependence among countries but also has increased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though there are many existing literature about the usefulness and limit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paradigm of international politics, most of the studies are based on theoretical arguments or case studies. Hence,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mpact of the affiliation to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which are selected based on a few criteria, namely, Committee on Banking Regulation and Supervisory Practices, World Trade Organizatio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on the degree of trade openness, measured by the trade volume (i.e., the volume of trade (export + import) as a percentage of nominal GDP).

Specifically, we establish a hypothesis based on the existing theoretical arguments as follows. That is, “realism means that a positive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affiliation to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the degree of trade openness, whereas the liberalism implies that there does not exist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affiliation to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the degree of trade openness.” To empirically test the above hypothesis, we estimate the impact of the affiliation to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in 1995 on the average trade volume for the periods of 1995-2000 or 1995-2005.

Using cross-section of 136 countries, the regression results suggest that a country with the affiliation to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has a lower level of trade openness.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influence of the affiliation to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have a negligible effect on the change of trade openness (an average value for the period of 1995-2005). These results are supporting to realism among the paradigm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Therefore, in relations of

international econom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not a trigger to bring on substantial increases of trade volume, but provide a kind of specific standard.

Key Words: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Realism, Liberalism, Trade Openness

황진영.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306-791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33번지  
Tel\_042 629 7581 Email\_jyh17@hnu.kr

양현석.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통계학과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Tel\_010 9092 7993 Email\_9883062@korea.ac.kr

